

석유화학, 영업실적 개선에 “화색”

1/4분기,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 ... 2/4분기는 공급과잉 우려 확산

국내 석유화학시장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2009년 1/4분기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탓이다.

그러나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왔는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14일 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주요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실적 개선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수요가 예상 외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 톤당 4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에틸렌(Ethylene) 가격은 2009년 들어 600달러대 초반까지 올랐다.

프로필렌(Propylene)도 2008년 11월 톤당 50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2009년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해 3월에는 900달러를 넘어섰다.

PE(Polyethylene)와 PP(Polypropylene)도 2008년 하반기 톤당 700-800달러대에 머물다가 3월 말에는 1000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나프타(Naphtha)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정유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2008년 80% 아래로 내려갔던 설비 가동률을 최근에는 100%에 가까이 끌어올려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천NCC는 최근 100%를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한때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졌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 100%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호남석유화학도 2009년 들어 주문량이 늘면서 1월 이후 설비를 풀가동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8년 하반기 가동을 중단한 에틸렌 크래커 1기를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의 생산설비를 풀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4분기의 석유화학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수요 증가세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고, 중국 및 중동의 신증설 가동으로 아시아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서 2/4분기부터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4>